

Effects of Sociodemographic, Injury-related and Pre-injury Job Characteristics on the Types of Return-to-work among Injured Workers in South Korea

Soo Kyung Park^{1#}, Chung Kwon Lee²⁺, Sung Min Lee³

¹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oedaemun-gu, Seoul, Korea

²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ha University, 100 Inha-ro, Nam-gu, Incheon, Korea

³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oedaemun-gu, Seoul, Korea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o-demographic, injury-related, and pre-injury job characteristics on the types of return-to-work among injured workers in South Korea. This study used the data from 1,993 injured workers in 2012 based on the first wave of the Panel Stud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SWCI). According to the results, workers who were in their 40s and 50s, living with spouse, working in a company with 100 employees or less, had less than three months of medical care, good health status, and worked for a long period as a regular employee were more likely to return to pre-injury job or find a new job. Thus, policy makers and practitioners need to consider not only socio-demographic and injury-related characteristics but also pre-injury job characteristics when designing return-to-work programs for injured workers in South Korea.

Key words: injured worker, return-to-work, pre-injury job, workers' compensation

1. 서론

2016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92,433명의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이중 88,45명의 근로자들은 업무상 질병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6). 산업재해는 개인에게는 신체적 기능의 저하는 물론 경력단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과 같은 이차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며(Yang, *et. al.*, 2016;

Ahn & Yeum, 2016),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무려 19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5). 따라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신속한 직업복귀는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산재근로자에게 있어 직장복귀는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고(Krause, *et. al.*, 1999; Tomassen & Asbeck, 2000)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과 다른

[#] The 1st author: Soo Kyung Park, Tel. +82-2-2123-2921, Fax. +82-2-2123-8656, e-mail. psk2016@yonsei.ac.kr

⁺ Corresponding author: Chung Kwon Lee, Tel. +82-32-860-8605, Fax. +82-32-863-3022, e-mail. ckl1@inha.ac.kr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재해근로자에게는 단순히 현금보상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에 정부는 명목상으로 운영해오던 재활사업을 2001년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산재보험 재활서비스를 체계화하였고, 2008년부터는 직업재활급여를 법정급여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2015년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율은 53.9%로, 이 중 원직장으로 복귀한 비율은 39.3%, 타직장으로 복귀한 비율은 14.6%로 나타났다(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2016). 우리나라의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은 과거에 비해 꾸준히 향상되었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70%)나 캐나다의(85%) 직업복귀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Burtler, *et. al.*, 1995; California Department of Relational Industrial Relations, 2011).

한편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의 성과는 직업복귀 유형별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유형은 크게 산재발생 이전의 직장으로 복귀하는 원직복귀, 산재발생 이전과 다른 직장으로 이전하는 타직복귀, 자영업이나 무급봉사를 하는 경우로 구분해볼 수 있다(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2016).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산재보험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로 설정한 목표는 원직복귀이고, 원직복귀가 어려울 경우 타직복귀나 자영업 등으로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직업복귀 유형별로 복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보면, 직업복귀의 성과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로 인구사회학적 특성(Hennessy & Muller, 1998; Yoo, 2000; Yee, 2005; Park & Ahn, 2006; Kreutzer, *et. al.*, 2007; Lee & Park, 2007; Fan, *et. al.*, 2010), 건강 및 산재 관련 특성(Mackenzie, *et. al.*, 1998; Habeck, *et. al.*, 1998; Amick, *et. al.*, 2000; Arnetz, *et. al.*, 2003; Kim, *et. al.*, 2015; Jung, *et. al.*, 2014), 심리사회적

특성(Seff, *et. al.*, 1992; Himmelstein, *et. al.*, 1995; Krause, *et. al.*, 1999; Loisel, *et. al.*, 2001; Bryngelsoon, 2009; Huijs, *et. al.*, 2017), 산재발생 당시 직업 특성(Oleinick, *et. al.*, 1996; Dasinger, *et. al.*, 2000; Kang, *et. al.*, 2006; Bultmann, *et. al.*, 2007; Park, 2014; Kim, *et. al.*, 2015; Doh, *et. al.*, 2015) 등을 보고하였다.

한편 세계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전통적인 고용관계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환경도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 등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재해근로자 직업복귀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왔다. 실제로 기업규모가 작고 영세한 업체의 경우 직업복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만한 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은 마련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 산재발생율은 높고(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5) 직업복귀율, 특히 원직복귀율은 낮은(Hahn, 2015) 취약대상으로 보고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복귀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도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이용이 저조하여 제한된 성과만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Jo, *et. al.*, 2015).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선행연구들을 보면, 직업복귀 예측요인들로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재해 관련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들에 비해 재해 당시 근무 환경을 고려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일부 선행 연구들의 경우 직업복귀 관련 요인으로 재해 당시 사업장의 규모(Yee, 2003; Jeong, 2003; Kang, *et. al.*, 2006; Hahn, 2015; Lee, 2017)나 임금수준(Hahn, 2015; Lee, 2017), 근무기간(Jeong, 2003; Lee, 2006; Kang, *et. al.*, 2006; Hahn, 2015), 고용지위(Hahn, 2015; Lee, 2017) 등 재해 당시 근무 환경 특성들의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일부 요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뿐이다. 더욱이 산재근로자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재해 관련 특성 등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과 함께 근무 환경적 특성들이 원직, 타직장, 자영업 등 유형별로 직업복귀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의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원직, 타직장,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등의 직업복귀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고, 직업복귀유형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재해 관련 특성, 재해당시 근무환경 특성 등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산재 근로자의 직업복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직업복귀의 의미와 유형

근로자의 직업복귀는 개인이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관심사이다. 개인적으로는 직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사회적 고립, 자존감 저하 등 심리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나 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문제도 발생한다(Seff, *et. al.*, 1992; Huijs, *et. al.*, 2017; Lee, 2010).

한편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직업복귀가 지연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Barofsky, 1989; Roijen, 1998). 재해 이후 근로자의 직장복귀의 성과는 단순히 직업복귀 여부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직업유지 및 승진 등의 질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산재근로자가 재해를 입기 전과 동일한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안정성을 주므로 조직 몰입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직업교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이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Lim & Lee, 2016). 따라서 산재근로자나 정부의 입장 모두 재해 이전 직장, 이전 업무로 돌아가는 원직복귀를 가장 성공적인 직업복귀의 성과로서 보는 경향이 강하다.

2. 직장복귀 관련 요인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일관되게 남성이 여성보다 더 직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Yee, 2005; Bultmann, *et. al.*, 2007,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5).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여성이 종사했던 재해 당시 일자리가 남성에 비해 좋지 않은 일자리였다거나, 여성들의 경우 직장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가사 일을 하는 것이 남성에 비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Kim & Kim, 2007).

연령과 직업복귀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결과를 보면, 대체로 어릴수록 직업복귀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라 직업복귀율이 높은 연령대는 다르게 나타났다. 20대 이하 직장 복귀율(45.7%)이 50대 이상의 복귀율(28.7%)에 비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Lee & Park, 2007)가 있는 반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해당하는 30대와 40대의 직장 복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Park & Ahn, 2006; Bultmann, *et. al.*, 2007).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업무의 숙련도에 따라 직업복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연령대별로 직업복귀율을 비교하기보다는 근속연수를 감안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20대를 포함한 30대와 40대의 경우 원직복귀가 높은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은 원직복귀보다는 재취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Doh, *et. al.*, 2015).

교육 수준을 보면 대졸 이상의 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ckenzie, *et. al.*, 1998).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해로 인한 손상에 잘 적응하며 직장활동 변화의 수용력에서도 많은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Hennessy & Muller, 1998).

결혼여부를 보면, 미혼인 경우보다 기혼인 경우에 직장에 복귀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는 반면(Kreutzer, *et. al.*, 2003; Jung, *et. al.*, 2014; Kim,

et. al., 2016), 결혼여부는 직장복귀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Park & Ahn, 2006).

2) 재해 관련 특성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에 장애등급이나 건강상태, 직장복귀까지 걸린 요양기간 등의 재해 관련 요인들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직장복귀가 어렵거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손상정도가 낮은 경우 직업복귀가 더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Mackenzie, *et. al.*, 1998; Lee, 2006).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장애등급과 직업복귀와의 관계를 보면, 장애등급이 1-4급인 장애인의 경우 10-14급 장애인에 비해 직장복귀에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Jeong, *et. al.*, 2003).

산재근로자의 건강상태 또한 직장복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해를 당한 이후 직장에 복귀에 늦어질수록 개인적, 사회적으로 건강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누적되거나 달라진 자신의 건강상태와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한다(Seff, *et. al.*, 1992; Himmelstein, *et. al.*, 1995; Krause, *et. al.*, 1999; Loisel, *et. al.*, 2001; Bryngelsoon, 2009). 객관적인 질병 외 산재를 입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건강상태 또한 직장복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Jeon, *et. al.*, 2010; Jung, *et. al.*, 2014).

재해를 당한 시점에서 개인 사정이나 환경적인 이유로 요양기간이 길어질 경우 직장복귀가 더 어려워진다(Habeck, *et. al.*, 1999; Amick, *et. al.*, 2000; Arnetz, *et. al.*, 2003; Lee, 2006). 요양기간은 재해로 인한 손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실제로 재해로 인한 손상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요양기간도 길어지게 되고 직장에 복귀하기도 어렵다(Dasinger, *et. al.*, 2000; Bultmann, *et. al.*, 2007; Kim, *et. al.*, 2015). 실제로 요양기간이 1년 이상인 재해근로자는 3개월 미만인 재해근로자에 비해 취업능력이 절반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났다(Kang, *et. al.*, 2006; Park, 2014).

3) 재해당시 직업 관련 특성

직장 규모, 임금 수준, 근무기간, 종사상의 지위 등과 같은 재해당시 직장 특성 또한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원직장 특성 요인들 중 직장의 규모는 직장복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직장 내 종업원 수가 많은 경우 즉 직장의 규모가 클수록 직장복귀율이 높다(Oleinick, *et. al.*, 1996; Dasinger, *et. al.*, 2000).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비해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복귀율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Kang, *et. al.*, 2006; Lee, 2009).

한편 재해를 입을 당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원직장 복귀율의 차이를 보였는데,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 50,0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이 8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약 3배에서 더 많게는 4배까지 원직장 복귀율이 높게 나타났다(Kang, *et. al.*, 2006). 또한 재해당시 월평균 소득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에 비해 300만원을 넘는 근로자의 직장복귀율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14).

이 외에도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특성 가운데 재해를 당하기 전 직장에서의 근무일수가 길수록 직장복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를 입을 당시 종사하던 직장에 오래 근속한 경우 원직장 복귀 비율이 증가했는데 입사한지 30일 이하 보다 31일에서 365일 사이인 경우 최대 3.11배, 366일 이상인 경우에는 9.21배로 그 비율의 차이를 보였으며 재해를 입기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의 직장 복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Dasinger, *et. al.*, 2000; Kang, *et. al.*, 2006).

재해 당시 종사상의 지위 또한 직장복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상용직, 임시직 그리고 일용직으로 구분하여 원직장 복귀와 관련한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원직복귀에 상용직의 비율이 59.2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임시직, 일용직의 순이었다(Park, 2014). 이 외에도 산재가 발생할 당시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와 관련하여 기능원 및 기능직 종사자에 비해 사무직 종사자가 직장복귀에 더 성공적이었으며(Bultmann, *et. al.*, 2007; Kim, *et. al.*, 2015; Doh, *et. al.*, 2015), 전문직이나 사무직, 기술직에 비해 판매, 서비스, 기능직과 단순노무 종사자들의 원직복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Kang, *et. al.*, 2006). 이와 같이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에 종사상의 지위가 직업복귀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이유는 직장 내 기능직이나 단순노무직의 특성이 다른 업무에 비하여 비교적 대체가 용이하다는 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Doh, *et. al.*, 2015).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 개인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과 재해 이후 전반적인 경제활동상태 및 산재보상 재활서비스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효과적 산재보험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자, 2012년 1월~12월 동안 요양종결산재근로자(주소불명, 외국인 및 제주도 거주자 제외) 82,493명의 조사모집단 중 층화계통추출 방식에 의한 2,0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2013년부터 매년 1회 산재보험패널조사를 실시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산재보험패널조사 중 제1차 자료 즉, 2012년 요양종결 산재근로자의 산재 전후 개인적 특성, 사회경제적 환경 상태, 보상 및 재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한 2013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결측치를 제외한 유효 응답자 1,993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변수

1) 종속변수

요양종결 후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는 응답자의 취업유형이다. 즉, 조사 당시 응답자의 취업 유형을 원직장 복귀, 재취

업, 실업 및 비경제, 자영업 및 무급가족 등 4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특성으로 바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산재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설명하는 변수들로서 산재근로자의 성별, 배우자 유무, 연령, 최종학력을 선정하였다. 이때 성별은 기준범주를 여성으로,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 없음을 기준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연령은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구분하고 기준집단을 60대 이상으로 정하였다. 최종학력은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으로 구분한 다음 기준범주를 중졸이하로 설정하였다.

둘째, 산재 당시 직업 관련 특성을 설명하는 변수들로서 재해당시 종사상지위, 사업장 근로자수, 근로시간 형태, 근로기간, 월평균 임금을 선정하였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하고 일용직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사업장 근로자수는 100인 이상, 10~99인, 9인 이하 등 세 범주로 나누어 9인 이하 사업장을 기준집단으로 정하였다. 근로기간은 5년 이상, 1년~5년 미만, 1개월~1년 미만, 1개월 미만으로 구분하고 1개월 미만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월평균 임금은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셋째, 산재근로자의 재해 관련 특성을 설명하는 변수들로서, 요양기간, 장애등급 유무, 건강상태를 선택하였다. 이때 요양기간을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로 구분하고 6개월 초과 범주를 기준으로 삼았다. 장애등급 유무는 장애등급 있음 기준집단으로, 건강상태는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4점 척도를 반분하여 좋음과 나쁨으로 구분하였고 이 중 기준범주를 나쁨으로 설정하였다.

3) 분석방법

우선 산재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재해 관련 특성, 재해 당시 직업 관련 특성들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기한 변수들과 요양종결 후 직업복귀 유형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검정변수가 연속인 경우 분산분석을, 범주형 변수의 경우 카이제곱통계량을 바탕으로 한 교차분석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재근로자의 특성들이 요양종결 후 직업복귀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변량 분석의 차원에서 파악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응답자의 취업 유형 중 실업 및 비경제 범주를 기준 집단으로 설정하여 상기한 독립변수와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변수별 요양종결 후 직업복귀 유형의 분포 차이 비교

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업복귀 유형

전체 산재 근로자 중 남성이 84.3%로 여성(15.7%)에 비해 약 5.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요양종결 후 직업복귀 유형을 살펴보면 실업/비경제 범주의 남녀의 비율이 7.9 대 2.1로서 원직장 복귀 또는 타직장 재취업 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카이제곱 검정 결과 성별에 따른 직업복귀 유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chi^2=20.598$, $p<.001$). 연령은 50대가 전체 응답자의 35.2%로 가장 높았고, 직업복귀 유형 범주별도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다만 원직장 복귀 범주에서는 50대가 32.6%인데 비해 타직장 재취업 범주에서는 50대가 38.1%로 좀 더 높은 비율을 보였고, 특히 실업/비경제 범주에서 60대가 28.4%로 다른 직업복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직업복귀유형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chi^2=94.172$, $p<.001$). 최종학력은 고졸이 45.2%로 가장 많았고, 특히 원직장으로 복귀한 근로자의 경우 고졸이 50.8%로 절반을 넘었다. 이에 비해 자영업/무급가족 또는 실업비경제 범주에서는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최종학력에 따른 직업복귀 유형 분포의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chi^2=87.263$, $p<.001$). 배우자 유무에 있어서는 유배우자가 70.6%로서 무배우자(29.4%)에 비해 약 2.4배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모든 직업복귀 유형에서도 유배우자가 많았다. 다만 실업/비경제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의 비율이 35.1%로서 다른 직업복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역시 배우자 유무에 따른 직업복귀 유형의 분포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20.659$, $p<.001$).

2) 재해 관련 특성과 직업복귀 유형

산재근로자의 재해 관련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요양기간은 6개월 초과한 경우가 42.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가 원직장으로 복귀한 근로자의 경우 48.2%로 가장 많은데 비해 실업/비경제인 경우 59.3%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요양기간에 따른 직업복귀 유형의 분포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chi^2=98.960$, $p<.001$). 장애등급이 있는 근로자가 82.5%로 나타났고, 장애등급과 직업복귀 유형의 관련성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chi^2=25.469$, $p<.001$). 주관적 건강상태는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가 55.2%이고, 특히 원직장으로 복귀한 경우 73.0%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실업/비경제의 경우 68.1%가 나쁜 건강상태의 평가를 함으로써 대조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강상태에 따른 직업복귀 유형 분포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221.288$, $p<.001$).

3) 재해 당시 직업 관련 특성과 직업복귀 유형

산재근로자의 산재 전 직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월평균임금은 225.2만원이고, 원직장으로 복귀한 근로자의 경우가 228.4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직장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229.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자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RTW outcomes

Variables	Total (N=1,993)		Return to Pre-injury jobs (N=693)		Work at a new firm (N=640)		Self-employed/Non- paid family business (N=73)		Unemployed (N=587)		χ^2
<u>Gender</u>											
Men	1680	84.3	585	84.4	564	88.1	66	90.4	465	79.2	20.598***
Women	313	15.7	108	15.6	76	11.9	7	9.6	122	20.8	
<u>Age</u>											
30s or younger	413	20.7	175	25.3	123	19.2	20	27.4	95	16.2	94.172***
40s	519	26.0	217	31.3	171	26.7	17	23.3	114	19.4	
50s	701	35.2	226	32.6	244	38.1	20	27.4	211	35.9	
60s or more	360	18.1	75	10.8	102	15.9	16	21.9	167	28.4	
<u>Education</u>											
College or more	307	15.4	151	21.8	87	13.6	11	15.1	58	9.9	87.263***
High school	900	45.2	352	50.8	289	45.2	26	35.6	233	39.7	
Middle school or less	786	39.4	190	27.4	264	41.3	36	49.3	296	50.4	
<u>Marital status</u>											
Living with a partner	1408	70.6	529	76.3	445	69.5	53	72.6	381	64.9	20.659***
Living without a partner	585	29.4	164	23.7	195	30.5	20	27.4	206	35.1	

* p<.05; ** p<.01; *** p<.001

영업/무급가족 근로자는 204.4만원, 실업/비경제인 경우 207.3만원으로 나타나 유형별 월평균임금의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10.938, p<.001). 사업장 근로자 수에 있어서 9인 이하 사업장이 47.4%로 가장 많았는데, 원직장 복귀의 범주에서는 10~99인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가 45.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직업복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른 직업복귀 유형의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chi^2=98.960$, p<.001).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55.2%로 가장 많았고, 특히 원직장으로 복귀한 근로자의 경우 82.0%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산재 전 일용직이었던 근로자의 경우 타직장으로 재취업한 범주에서는 45.3%, 실업/비경제의 범주에서는 40.2%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종사상 지위와 직업복귀 유형의 관련성 또한 유의한 것으로 분

Table 2. Injury-related characteristics and RTW outcomes

Variables	Total (N=1,993)		Return to Pre-injury jobs (N=693)		Work at a new firm (N=640)		Self-employed/Non- paid family business (N=73)		Unemployed (N=587)		χ^2
<u>Duration of medical care benefits</u>											
< 3 months	319	16.0	136	19.6	117	18.3	14	19.2	52	8.9	106.917***
3-6 months	823	41.3	334	48.2	267	41.7	35	47.9	187	31.9	
> 6 months	851	42.7	223	32.2	256	40.0	24	32.9	348	59.3	
<u>Disability status</u>											
Without disability	349	17.5	135	19.5	126	19.7	21	28.8	67	11.4	25.469***
With disability	1644	82.5	558	80.5	514	80.3	52	71.2	520	88.6	
<u>Self-rated health</u>											
Good	1100	55.2	506	73.0	371	58.0	36	49.3	187	31.9	221.288***
Bad	893	44.8	187	27.0	269	42.0	37	50.7	400	68.1	

* p<.05; ** p<.01; *** p<.001

Table 3. Pre-injury job characteristics and RTW types

Variables	Total (N=1,993)		Return to Pre-injury jobs (N=693)		Work at a new firm (N=640)		Self-employed/Non-paid family business (N=73)		Unemployed (N=587)		χ^2
<u>Monthly wage</u> 10,000won(SD)	225.21 (104.69)		238.35 (107.68)		229.82 (100.33)		204.37 (110.45)		207.25 (102.38)		10.938***
<u>Enterprise size</u>											
100 or more	200	10.0	126	18.2	31	4.8	6	8.2	37	6.3	
10-99 employees	848	42.5	312	45.0	260	40.6	29	39.7	247	42.1	98.960***
Under 9 employees	945	47.4	255	36.8	349	54.5	38	52.1	303	51.6	
<u>Employment status</u>											
Permanent	1100	55.2	568	82.0	248	38.8	35	47.9	249	42.4	
Temporary	268	13.4	54	7.8	102	15.9	10	13.7	102	17.4	319.584***
Daily	625	31.4	71	10.2	290	45.3	28	38.4	236	40.2	
<u>Type of work hours</u>											
Full time	1915	96.1	677	97.7	614	95.9	68	93.2	556	94.7	
Part time	78	3.9	16	2.3	26	4.1	5	6.8	31	5.3	9.376*
<u>Work period</u>											
Over 5 years	303	15.2	229	33.0	22	3.4	5	6.8	47	8.0	
1-5 Years	383	19.2	196	28.3	90	14.1	11	15.1	86	14.7	
1-12 months	658	33.0	192	27.7	232	36.3	32	43.8	202	34.4	438.620***
Under 1 month	649	32.6	76	11.0	296	46.3	25	34.2	252	42.9	

* p<.05; ** p<.01; *** p<.001

석되었다($\chi^2=319.584, p<.001$). 근로시간형태는 전일제가 96.1%로 시간제(3.9%)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한편 근로시간에 따른 직업복귀 유형 역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chi^2=9.376, p<.05$). 근로기간은 전체적으로 1개월~1년 미만 33.0%, 1개월 미만 32.6%로 많았지만, 원직장으로 복귀한 근로자의 범주에서는 5년 이상 근로한 숙련 근로자의 비율이 33.0%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근로기간과 직업복귀 유형의 관련성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chi^2=438.620, p<.001$).

2.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요양종결 후 직업복귀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직업복귀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실업/비경제 상태에 있기보다는 타직장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1.7배, 자영업/무급가족인 가능성이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연령에 있어서 60대 이상과 비교하여 낮은 연령인 경우 실업/비경제 상태에 있기보다는 원직장으로 복귀(1.4~2.5배) 또는 타직장으로 재취업(1.7~2.3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우자 유무 역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실업/비경제 상태에 있기보다는 원직장으로 복귀 가능성이 1.6배, 타직장으로 재취업 가능성이 1.4배, 자영업/무급가족의 가능성이 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복귀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재 전 사업장 및 고용특성이 직업복귀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 월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실업/비경제 상태에 있기보다는 원직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OR=1.002, p<.05). 사업장 근로자 수의 경우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9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 비해 실업/비경제상태에 있기보다는 원직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1.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는 일용직에 비해 상용직에 종사한 근로자가 실업/비경제

Table 4.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on factors associated with RTW types

Variables	Return to Pre-injury jobs vs. Unemployed			Work at a new firm vs. Unemployed			Self-employed/Non-paid family business vs. Unemployed		
	B	S.E.	Exp(B) Odds Ratio	B	S.E.	Exp(B) Odds Ratio	B	S.E.	Exp(B) Odds Ratio
<u>Gender</u>									
Female(ref)									
Male	0.352	0.197	1.422	0.510	0.190	1.665**	1.247	0.452	3.480**
<u>Age</u>									
60 or more(ref)									
30 or younger	0.574	0.269	1.776*	0.515	0.242	1.674*	1.061	0.482	2.890*
40s	0.921	0.236	2.511***	0.844	0.205	2.325***	0.819	0.420	2.268
50s	0.681	0.203	1.976**	0.575	0.172	1.778**	0.163	0.367	1.177
<u>Education</u>									
Under Mid(ref)									
College or more	0.458	0.245	1.581	0.300	0.233	1.349	-0.239	0.470	0.788
High school	0.103	0.170	1.108	0.050	0.149	1.051	-0.577	0.330	0.562
<u>Marital status</u>									
Without spouse(ref)									
with spouse	0.467	0.160	1.596**	0.350	0.140	1.419*	0.688	0.312	1.990*
<u>Average wage (10,000won)</u>									
	0.002	0.001	1.002*	0.001	0.001	1.001	-0.002	0.002	0.998
<u>Enterprise size</u>									
1-9 employees(ref)									
10-99employees	0.002	0.144	1.002	-0.070	0.128	0.932	-0.112	0.270	0.894
≥100 employees	0.620	0.251	1.859*	-0.018	0.279	0.982	0.380	0.503	1.462
<u>Employment status</u>									
Daily(ref)									
Temporary	0.078	0.250	1.081	-0.205	0.189	0.815	-0.400	0.424	0.670
Permanent	0.702	0.205	2.017**	-0.451	0.168	0.637**	-0.199	0.352	0.820
<u>Type of working hours</u>									
Part-time(ref)									
Full-time	-0.436	0.379	0.646	0.122	0.303	1.129	-0.460	0.542	0.631
<u>Length of service</u>									
< 1 month(ref)									
1-12 months	0.906	0.192	2.474***	0.161	0.148	1.175	0.583	0.317	1.792
1-5 years	1.561	0.227	4.763***	0.145	0.207	1.156	0.380	0.441	1.462
> 5 years	2.230	0.258	9.301***	-0.626	0.303	0.534*	0.250	0.575	1.284
<u>Duration of medical care benefits</u>									
> 6 months(ref)									
3-6 months	1.014	0.151	2.757***	0.568	0.134	1.764***	0.941	0.291	2.562**
Under3 months	1.279	0.239	3.593***	0.883	0.225	2.417***	0.868	0.434	2.382*
<u>Disability status</u>									
With disability(ref)									
Without disability	0.054	0.215	1.056	0.217	0.201	1.242	0.804	0.344	2.235*
<u>Self rated health</u>									
Bad(ref)									
Good	1.454	0.144	4.280***	0.996	0.129	2.707***	0.477	0.267	1.611

*p<.05; **p<.01; ***p<.001

상태에 있기보다는 원직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2.0배 높은 반면, 타직장으로 재취업 가능성은 36.3%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로기간은 1개월 미만의 근로자에 비해 근로기간이 길수록 원직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2.5배에서 9.3배까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해 관련 특성이 요양종결 후 직업복귀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요양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 비해 요양기간이 짧을 때 실업/비경제 상태에 있기보다는 원직장으로 복귀할 가능성(2.8~3.6배), 타직장으로 재취업 가능성(1.8배~2.4배), 자영업/무급가족일 가능성(2.4배~2.6배)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근로자에 비해 좋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원직장 복귀 가능성이 4.3배 또는 타직장으로 재취업 가능성이 2.7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산재 근로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재해관련 특성, 재해 당시 직업 특성 등이 직업복귀 유형별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직업복귀 정책 및 실천에 필요한 제언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인구사회학적 특성, 재해관련 특성, 재해 당시 직업 관련 특성과 직업복귀 유형과의 이변량(bivariate analysis)분석 결과,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 연령, 교육정도, 배우자 여부, 월평균 임금, 회사 규모, 고용지위, 고용타입, 근속기간, 요양기간, 장애등급, 주관적 건강상태 등에 따라 원직장 복귀, 타직장 복귀, 자영업/무급가족사업 종사, 실업상태에 있는 비율이 상이하게 나타나, 직업복귀가 개인적인 요인들뿐만 아니라 직업 환경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유형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이러한 산재근로자의 특성들이 직업복귀 유형별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은 원

직복귀, 타직장복귀의 가능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실업에 비해 재취업할 가능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1.7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Yee, 2005; Bultmann, *et. al.*, 2007;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5). 이러한 결과는 재해 당시 여성들이 종사했던 일자리 질이 좋지 않았거나(Fan, *et. al.*, 2010), 여성이 회사 일을 관두고 가사업무로 돌아가는 것이 남성에 비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가부장적 문화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Kim & Kim, 2007). 흥미로운 결과는 타직장 복귀나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것과는 달리 원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여성에 비해 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원직복귀율이 높다는 선행연구결과들과는(Yee, 2005; Park & Ahn, 2006; Bultmann, *et. al.*, 2007) 다른 결과로, 다른 요인들에 비해 성별이 원직복귀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성별과 원직복귀 여부를 이변량(bivariate analysis) 분석했을 때 남성이 여성에 비해 원직복귀율이 높게 나타났다지만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성별이 원직복귀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직업복귀 가능성을 살펴보면, 원직복귀와 재취업 모두, 60대에 비해 40대(2.3~2.5배)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1.9~2.0배), 30대 이하(1.7~1.8배)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무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된 40대나 50대 근로자들이 오히려 직장에 복귀하기 더 용이하지만 근무경험이 짧은 20대나 3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직업복귀가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며,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Park & Ahn, 2006; Bultmann, *et. al.*, 2007).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직업복귀 전략 수립 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교육수준에 따라 직업복귀 유형별로 복귀할 확률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선행연구들

(Mackenzie, *et. al.*, 1998; Hennessy & Muller, 1998)과는 다른 결과이다. 사실 장애인의 고용은 비장애인의 고용과 달리 인적자본요인보다는(Kang & Lee, 2010) 고용주의 편견이나 가치(Graffam, 2002), 정책적인 지원(Berthoud, 2008)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산재로 인해 장애를 입은 근로자들의 직업복귀의 가능성은 교육수준보다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에 주목하여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직업복귀 유형별 가능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자가 더 높은 직장복귀율을 보인다는 선행연구(Kreutzer, *et. al.*, 2003; Jung, *et. al.*, 2014; Kim, *et. al.*, 2016)와 일치한다. 반면, 배우자의 유무가 산재장애인의 원직복귀와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Park & Ahn, 2006)도 있어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전국규모의 산재 근로자인 반면 Park & Ahn(2006)의 연구대상자는 산재장애인으로 대상자가 다르다. 따라서 향후 추가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재해 관련 특성은 산재근로자가 직업에 복귀하는 데 까지 걸리는 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결과, 요양 기간이 짧은 경우 원직복귀나 새로운 직장 그리고 자영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복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시점이 가능한 빠를수록 원직복귀와 재취업에 더 유리하다는 선행연구들의 지적과 일치한다(Yee, 2005; Park & Ahn, 2006). 반면 본 연구에서 장애여부는 어떤 직업복귀 유형과도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여부는 직업복귀유형과 관련이 있었지만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는 관련이 없었다. 따라서 장애여부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유형별 직업복귀 가능성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원직장 복귀나 타직장 복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재 근로자가 인지하는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긍정적일수록 원직이나

새로운 직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결과들과(Himmelstein, *et. al.*, 1995; Loisel, *et. al.*, 2001; Bryngelsoon, 2009) 일치한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장해정도보다는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직업복귀과정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재근로자의 재해 당시 직장의 특성들 또한 직업복귀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평균임금은 원직복귀와 관련이 있었지만 타직장 복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선행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Kang, *et. al.*, 2006). 일반적으로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근속기간이 짧거나 숙련된 기술을 가졌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복귀보다는 대체할 인력을 찾는 것을 선호한다(Doh, *et. al.*, 2015). 한편, 종사하던 직장이 100인 이상의 규모인 경우에는 9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에 비해 원직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1.8배 높았지만 새로운 직장에 복귀할 가능성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회사규모가 클 경우 재해근로자의 건강회복이나 원직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규모가 큰 회사에 다닌 경우 원직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더 큼을 보여준다(Oleinick, *et. al.*, 1996; Dasinger, *et. al.*, 2000; Kang, *et. al.*, 2006; Lee, 2009). 또한 상용직 재해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원직장과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확률이 더 높았지만, 전일제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자와 비교해 볼 때 직업복귀 가능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주가 상용직 근로자의 업무 관련 경력과 전문성이 더 높게 평가되고 직업복귀에 더 호의적인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반면 고용이 불안정하고 업무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재해를 입었을 때 직업복귀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근속연수와 직업복귀 가능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원직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타직장 복귀는 근속기간과 관

련이 없거나 오히려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복귀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근속연수가 직업복귀와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Dasinger, *et. al.*, 2000; Kang, *et. al.*, 2006), 이러한 가능성은 주로 원직복귀와 더 관련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근속기간이 원직복귀와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타직장 복귀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음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정책 및 개입의 발전을 위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유형별로 재활과정에서 중점을 둘 사항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산재근로자의 재활과정은 개별 사례관리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원직복귀 가능성이 높은 집단과 타직장 복귀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례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재해 당시 직장 특성은 원직장 복귀 가능성과 주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원직장 복귀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차별화된 개입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회사규모나 저임금근로자, 고용지위, 근속기간에 따라 원직복귀 가능성이 달라지는 만큼 현재와 같이 사업주에 대한 일률적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의 저숙련,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반면 타직장 복귀는 재해 당시 직업 관련 특성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상근직 근로자였던 근로자가 일용직에 비해 복귀가능성이 낮았고, 5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1개월 미만 근로자에 비해 타직장 복귀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해근로자의 숙련도가 타직장 복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보여준다. 즉, 재해 근로자가 타직장에 복귀할 때 재해 당시 업무와 관련된 사항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재해근로자들이 타직장에 복귀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연령대별로 유형별 직업복귀가능성이 다르다

는 점을 고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자영업이나 가족 사업에 무급 종사할 가능성이 젊은 층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직업재활과정에서 적극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30대 이하 젊은 근로자의 원직복귀율과 타직장 복귀율이 40-50대 원직, 타직 복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훈련은 장기적인 계획을 토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산재근로자의 유형별 직업복귀가능성과 교육정도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역시 이들이 복귀하는 업무와 교육정도의 상관정도가 낮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직업에 복귀할 경우 직업유지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충분한 직업훈련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적인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성들이 직업복귀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대규모의 전국 표본을 대상으로 직업복귀 유형에 대한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재해 당시 직업 관련 특성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업규모와 근로자의 고용지위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현재 회사나 고용주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고용지위나 회사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기존의 획일적인 지원책만으로 직업복귀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새로운 문제인식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갖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산재보험 패널 조사를 활용하여 2차 자료분석하였기 때문에 변수 선정에서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는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요인들이 많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들 통해 이에 대한 분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영업 및 가족무급종사자의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일반화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산재근로자들의 경제활동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후속종단연구를 통해 직업복귀 관련 정책 및 전략 수립에 보다 심층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Ahn, Seong Ah and Dong Moon Yeum. 2016.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on Life Satisfaction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Journal of Rehabilitation Welfare Engineering & Assistive Technology*. 10(2): 119-126.
- Amick, B. C. III, R. V. Habeck, A. Hunt, A. H. Fossel, A. Chapin, R. B. Keller, and J. N. Katz. 2000. Measuring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Behaviors on Work Disability Prevention and Management. *Journal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10(1): 21-38.
- Arnetz, B. B., B. Sjogren, B. Rydehn, and R. Meisel. 2003. Early Workplace Intervention for Employees with Musculoskeletal-Related Absenteeism: A Prospective Controlled Intervention Study. *Journal of Occupational Environmental Medicine*. 45: 499-506.
- Barofsky, I. 1989. *Work & Illness: The Cancer Patient*. New York: Praeger.
- Berthoud, R. 2008. Disability Employment Penalties in Britain.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2(1): 129-148.
- Bryngelsson, A. 2009. Long-Term Sickness Absence and Social Exclusion.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37(8): 839-845.
- Bultmann, U., R. L. Franche, S. Hogg Johnson, P. Côté, H. Lee, C. Severin, M. Vidmar, and N. Carnide. 2007. Health Status, Work Limitations, and Return-to-Work Trajectories in Injured Workers with Musculoskeletal Disorders. *Quality of Life Research*. 16(7): 1167-1178.
- Butler, R. J., W. G. Johnson, and M. L. Baldwin. 1995. Managing Work Disability: Why First Return to Works Is Not a Measure of Succes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8(3): 452-468.
- California Department of Relational Industrial Relations. *Return-to-Work Rates for Injured Workers with Permanent Disability* [cited 2011 Mar 8]. Available from: www.dir.ca.gov/dwc/return-toworkrates/returntoworkrates.htm.
- Dasinger, L. K., N. Krause, L. J. Deegan, R. J. Brand, and L. Rudolph. 2000. Physical Workplace Factors and Return to Work after Compensated Low Back Injury: A Disability Phase-Specific Analysi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42(3): 323-333.
- Doh, Gip Peum, Soo Yeon Kim, and Yang Jin Kim. 2015. Statistical Analysis of Economic Activity State of Workers with Industrial Injuries Using a Competing Risk Model.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6(6): 1271-1281.
- Fan, J. K., C. B. McLeod, and M. Koehoom. 2010. Sociodemographic, Clinical, and Work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Returning-to-Work Outcomes Following Surgery for Work-Related Knee Injury. *Scandinavian Journal of Work Environment and Health*. 36: 332-338.
- Graffam, J., A. Shinkfield, K. Smith, and U. Polzin. 2002. Factors That Influence Employer Decisions in Hiring and Retaining an Employee with a Disability.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17(3): 175-181.
- Habeck, R. V., H. A. Hunt, and B. Vantol. 1998. Workplace Factors Associated with Preventing and Managing Work Disability.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42: 98-143.
- Hahn, Chung Hyun. 2015. *A Study on Predictors of Type of Return to Work among Injured Workers in South Korea*. Ulsan, South Korea: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Welfare Research Institute.
- Hennessey, J. C. and L. S. Muller. 1998. The Effec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Work Incentives on Helping the Disabled-Worker Beneficiary Back to Work. *Social Security Bulletin*. 58(1): 15-28.
- Himmelstein, J. S., M. Feuerstein, E. J. Stanek, K. Koyamatsu, G. S. Pransky, W. Morgan, and K. O. Anderson. 1995. Work-Related Upper Extremity Disorders and Work Disability: Clinical and Psychosocial Present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Environmental Medicine*. 37(11): 1278-1286.
- Huijs, J. J., L. L. Koppes, T. W. Taris, and R. W. Blonk. 2017. Work Characteristics and Return to Work in Long-Term Sick-Listed Employees with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1-11.
- Jeon, Bo Young, Soon Man Kwon, Byong Hee Cho, and Tae Jin Lee. 2010. Factors Associated with Employment and Life Satisfaction of Occupationally Injured People. *Korean Social Security Association*. 26(2): 199-222.

- Jeong, Won Mee, Chung Yill Park, Jung Wan Koo, and Young Man Roh. 2003. Predictors of Return to Work in Occupational Injured Workers.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15(2): 119-131.
- Jo, Sung Jae, Seung Wook Lee, Chang Keun Song, and You Jin Park. 2015. Rehabilitation Services Needs among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and Employer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5(1): 85-103.
- Jung, Pil Kyun, Wan Hyung Lee, and Jong Wook Won. 2014. The Factors Relation to Return to Pre-Injury Job.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014(11): 299-300.
- Kang, Hee Tae, Hyoung June Im, Yong Kyu Kim, Young Su Ju, Hwa Pyung Lee, Jeong Min Kim, and Young Jun Kwon. 2006. Predictors of Return to Work and Job Retention after Work-Related Injury or Illness.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18(3): 221-231.
- Kang, Pil Soo and Jung Joo Lee. 2010. Determinant of Employment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in Business. *Disability and Employment*. 20(1): 179-206.
- Kim, Chae Bong, Jeong Hee Yang, Bo Ram Choi, and Seong Min Han. 2016. Convergence Effective Factors for Work Performance among Returning to Workers with Industrial Accid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3): 149-157.
- Kim, Su Jeong and Eun Ji Kim. 2007. Housework and Economic Dependency among Dual-Earner Couples in Korea: Economic Exchange or Gender Compensation?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41(2): 147-174.
- Kim, Young Kwang, Jin Ha Yoon, Wan Hyung Lee, Hong Duk Suk, Jun Hee Lee, Jong Wook Won, and Jae Hoon Noh. 2015. The Study on Factor of Retain at Returned Pre-Injury Job Following Work-Related Injury.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015(11): 438-439.
-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2016. *The Report of Analysis for Korea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anel Data*. Ulsan, South Korea: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 Krause, J. S., D. Kewman, M. DeVivo, F. Maynard, J. Coker, M. Roach, and S. Ducharme. 1999. Employment after Spinal Cord Injury: Analysis of Cases from the Model Spinal Cord Injury Systems.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80(11): 1492-1500.
- Kreutzer, J. S., J. H. Marwitz, W. Walker, A. Sander, M. Sherer, J. Bogner, R. Fraser, and T. Bushnik. 2003. Moderating Factors in Return to Work and Job Stability after Traumatic Brain Injury. *The Journal of Head Trauma Rehabilitation*. 18(2): 128-138.
- Lee, Jeong Hwa. 2017. 'Decent' Return to Work(RTW): The Relationship among Individual, Segmented Labor Market and RTW Program.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7(2): 389-422.
- Lee, Ju Hwan. 2009. The Factors that Return to Work for Injured Worker.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Lee, Sang Jin. 2010. The Return-to-Work System of the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in Korea.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0(3): 1-34.
- Lee, Seung Wook and Hye Jeon Park. 2007. A Study on the Return to Work Factors for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17(1): 69-99.
- Lee, Seung Wook. 2006. A Study on the Return to Work Factors for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Ph.D.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 Lim, Jung Yon and Young Min Lee. 2016. A Study on the Factors of Job Adjustment of Injured Workers Returned Workplace.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17: 531-564.
- Loisel, P., M. J. Durand, D. Betrthelette, N. Vézina, R. Baril, D. Gagnon, C. Larivière, and C. Tremblay. 2001. Disability Prevention: New Paradigm for the Management of Occupational Back Pain. *Disability Manage Health Outcomes*. 9(7): 351-360.
- Mackenzie, E. J., J. A. Morris Jr, G. J. Jurkovich, Y. Yasui, B. M. Cushing, A. R. Burgess, B. J. DeLateur, M. P. McAndrew, and M. F. Swiontkowski. 1998. Return to Work Following Injury: The Role of Economic, Social, and Job-Related Factor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8(11): 1630-1637.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5. *Analysis on 2014 Occupational Injury*. Sejong, South Korea: Ministry of

- Employment and Labor.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6. *Statistics on Work Injuries* [cited 2017 Jul 8]. Available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4
- Oleinick, A., J. V. Gluck, and K. E. Guire. 1996. Factors Affecting First Return to Work Following a Compensable Occupational Back Injury.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30(5): 540-555.
- Park, Eun Joo. 2014. The Job History of Injured Workers after the Injury.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31(1): 109-135.
- Park, Soo Kyung and Chi Min Ahn. 2006. Predictors of Job Retention among Worker's Compensation Clients in South Korea.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26: 177-194.
- Roijen, H. L. 1998. Societal Perspective on the Cost of Illness. Ph.D. Dissertation.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 Seff, M. A., V. Gecas, and M. P. Ray. 1992. Injury and Depressi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pt. *Sociological Perspectives*. 35(4): 573-591.
- Tomassen, P., M. Post, and F. Van Asbeck. 2000. Return to Work after Spinal Cord Injury. *Spinal Cord*. 38(1): 51-55.
- Yang, Jae Seong, Soon Bok Oh, and Sung Soo Lim. 2012. Determinant Factor Analysis for Return to Work Types of Occupationally Injured Workers.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8(3): 153-177.
- Yee, Seung Yeol. 2003. *Analysis on Injured Workers' Return to Work and Determinant Factor*. Korea Labor Institute.
- Yee, Seung Yeol. 2005. *The Study on Labor Transition of Injured Workers*. Korea Labor Institute.
- Yoo, Dong Chul. 2000. A Study on the Discrimination Effect of the Person with Disability in the Labor Market: Focused on the Person with Physical Disability.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강필수, 이정주. 2010.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0(1): 179-206.
- 강희태, 임형준, 김용규, 주영수, 이화평, 김정민, 권영준. 2006. 산업재해 근로자의 직장복귀 및 원직복귀 예측 요인.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18(3): 221-231.
- 고용노동부. 2015. 2014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 세종: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16. 산업재해현황통계자료. 세종: 고용노동부.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4
- 근로복지공단. 2016. 제3차 산재보험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울산: 근로복지공단.
- 김수정, 김은지. 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한국사회학*. 41(2): 147-174.
- 김영광, 윤진하, 이완형, 석홍덕, 이준희, 원종욱, 노재훈. 2015.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 후 직장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5(11): 438-439.
- 김채봉, 양정희, 최보람, 한성민. 2016. 산업재해 직업복귀자의 업무수행능력 융합적 영향 요인. *한국융합학회* 7(3): 149-157.
- 도기쁨, 김수연, 김양진. 2015. 경쟁위험분석을 이용한산재 근로자의 원직장복귀에 대한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6(6): 1271-1281.
- 박수경, 안치민. 2006.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예측요인. *사회복지정책*. 26: 177-194.
- 박은주. 2014. 산재근로자의 재해 이후 취업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보장연구*. 30(2): 191-220.
- 안성아, 염동문. 2016.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10(2): 119-126.
- 양재성, 오순복, 임성수. 2012.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요양종결 후 장애판정자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8(3): 153-177.
- 유동철. 2000. 노동시장의 장애인 차별 영향분석: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진. 2010. 우리나라 산재장애인 직장복귀정책 강화방안. *직업재활연구*. 20(3): 1-34.
- 이승렬. 2003.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렬. 2005. 산재근로자의 노동이동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욱, 박혜전. 2007.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직업재활연구*. 17(1): 69-99.
- 이승욱. 2006.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화. 2017. 괜찮은 직업복귀: 개인, 분절된 노동시장, 제도차

- 원의 접근. 보건사회연구 37(2): 389-422.
- 이주환. 2009.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정연, 이영민. 2016. 원직복귀 산재근로자의 직장적응 영향요인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17: 531-564.
- 전보영, 권순만, 조병희, 이태진. 2010. 산재장애인의 취업 및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애발생 후 직업복귀 상황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6(2): 199-222.
- 정원미, 박정일, 구정완, 노영만. 2003. 산업재해 근로자의 직장복귀 예측요인. 대한 직업환경의학회지. 15(2): 119-131.
- 정필균, 이완형, 윤진하, 원종욱. 2014.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와 관련된 요인.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1): 299-300.
- 조성재, 이승욱, 송창근, 박유진. 2015. 산재근로자와 사업주의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욕구조사. 직업재활연구. 25(1): 85-103.
- 한충현. 2016.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근로복지공단.

Received: Aug. 1, 2017 / Revised: Sep. 18, 2017 / Accepted: Sep. 21, 2017

산재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재해 관련, 근무환경 특성이 직업복귀 유형에 미치는 영향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복귀 실태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직업복귀 유형에 인구사회학적 특성, 재해 관련 특성, 재해당시 근무환경 특성 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2년 요양종결 산재근로자 표본 1,993명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패널 2013년 1차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직업 환경 특성에 따라 원직장복귀, 타직장복귀, 자영업/무급가족사업 종사, 실업상태에 있는 비율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남성, 40대와 50대,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 100인 이상의 규모 사업장, 상용직, 장기 근속한 근로자가 원직장복귀 또는 재취업할 가능성이 실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전략 수립 시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직업 환경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원직장 특성, 산재보험

Profiles **Soo Kyung Park** : She graduated from Yonsei University and received Master and MSW Ph.D. i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 Yonsei University. Her main research field is return to work among injured workers. She has published several articles about return to work for injured worker and main article is "Association of Demographic and Injury-related Factors with Return to Work among Job-injured Workers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psk2016@yonsei.ac.kr).

Chung Kwon Lee : He received a Ph.D. in social work from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Dissertation: Variations in the Costs of Caring for Children in out-of-home Care, 2011). His main areas of research interest are welfare policy and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dolescents, workers, and families. He has expertise in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ckl1@inha.ac.kr).

Sung Min Lee : He is in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in Yonsei University as a master degree course(92taman@naver.com).